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꼭 새로 설치된 체온측정 및 자동 손 세정제 기구를 사용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3/27) 청소담당은 키르키스탄 목장(박성근 집사)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3/28) 주일간식담당은 에스더 목장(오효근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교회 정규예배(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봄과 함께 예배 또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오늘 간식은 이강정·표명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3월 21일	3월 28일	4월 4일	4월 11일
예배기도(2부)		이정환 집사	신태식 장로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이강정·표명순 집사 가정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헵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키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침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는 길



섬김
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예수 닮아

향기되어

감동주는

하늘문교회

2021년
3월 21일
07-12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83장(통 172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이정현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수 24:14-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하나님편에서서’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 결 단 송	620장(통 620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9:1-13 '마땅히 해야 할 것'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9)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사순절에 부친다

봄바람의 기운이 진하다. 순환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맛보는 흥겨움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필립 안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예수는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시간과 장소 또한 선택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날 장소와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셨는지,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범주다. 물론 주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도라면 누구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시점과 장소는 책박하기 이를 데 없었기에 다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앙은 그저 날로(?) 먹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는 결코 그저 되는 법이 없다. 어쩌면 단호하리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철저하신 분이시다.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하면 된다.'는 공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철저히 알게 하신다. 즉, 성도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응답이 대부분 더디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힘겨운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참고 견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됨이 응답된 것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일까. 이런 저런 힘겨운 경험들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필수과정임에 틀림없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계속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며, 세상에 두는 소망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보다 고상한 고민을 갖고 살도록 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환경에 우겨 씹을 당하는 성도에게 늘 소망의 표상이 되어 주시고,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 보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이끄신다.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고상한 인생이 되도록 빚어지는 과정이다. 믿음의 사람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며 두 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소망의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Written by 허영진